■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7〉

劾 退 之
핵 퇴 지

탄핵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彈劾)하여 물러나게 하여 대통령선거를 일찍 하게 하였는데,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여 지금 직무정지가 되었다. 만약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만약을 대비하여 만든 제도이다. 공직을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잘 못을 저질렀을 때 더 이상 국가나 국민에게 해악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을 공직에서 제거하는 것이니, 좋은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 조치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인지 잘 판단하여 이 무서운 탄핵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탄핵으로 벌어지는 혼란과 해악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탄핵이 잘한 것인지는 공직자를 그대로 두었을 때에 벌어질 손해와 공직자를 중간에 탄핵하여 벌어질 혼란으로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만 탄핵한 것이 아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내무부장관, 방통위원장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까지 무려 29명을 탄핵하겠다고 발의 하였고 그중 13명을 결의 했으니 전에 없이 많은 숫자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 이들이 맡았던 업무의 추진은 자연히 방해 받게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사유가 헌재에서 각하라도 된다면 탄핵거리가 안 되는 것으로 탄핵한 셈이니 탄핵을 추진한 사람들은 해당 공직자가 일을 못하여 발생했을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내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각하되었고, 검사에 대한 탄핵 가운데도 각하된 것이 한 건 있다. 나머지는 헌재의 심리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수의 탄핵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은 원래 전통시대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조정에서는 많은 관리를 두어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데, 그 많은 관리 가운데 자기 직무를 어기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감독하여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게 하려고 감찰기관을 두었다. 이들이 어사대(御史臺), 언관(言官) 같은 직함을 가진 사람인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관리를 감독하며 탄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순기능으로 추진된다면 정부의 업무추진은 효율적이 되지만, 이것의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다. 이 제도의 역기능이 나타난 경우는 권력자가 자기를 거역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넌지시 언관에게 말하여 탄핵하여 내쫓았던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역기능을 한 것 가운데 남송시대에 재상인 가사도(賈似道)가 했던 것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가사도는 누이가 이종(理宗)의 귀비(貴妃)인 것을 이용하여 출세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권력을 잡고 남송이 망할 때까지 황제를 제치고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이다. 그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던 시기는 몽고가 남하하고 있었으니 남송으로서는 위기였다. 그런데 그는 나라의 위기보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싫어하여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말이 옳건 그르건 언관에게 넌지시 지시하여 탄핵하여 내 쫓는 일을 자행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1273년 6월의 일이다. 남송이 멸망하기 바로 몇 년 전인 이해 2월에 남송을 버티게 하던 중요한 요충지인 양양성(襄陽城)이 원군(元軍)에게 함락되었다. 곧 장강(長江)이 무너지고 원군이 내려올 판이었다. 이때 형부상서 겸 급사중(給事中)인 진의중(陳宜中)이 편지를 올렸다. '양·번(襄·樊)을 잃은 것은 모두 범문호(范文虎)가 겁먹고 나약하여 도망함으로 말미암았으니 청컨대 그를 참수하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재상 가사도는 범문호의 관질 한등급만 내릴 뿐이었다. 자기가 조치한 인사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감찰어사(監察御史)인 진문룡(陳文龍)이 '범문호가 양양(襄陽)을 잃었는데 오히려 지안경부(知安慶府)로 하였으니 이는 벌(罰)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賞)을 준 것입니다. 조진(趙)은 젓 냄새 나는 어린 아이인데 큰 전방부대를 지휘하도록 맡기었지만, 어떻게 충분히 감당하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파직시키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조진은 가사도를 형님으로 섬기는 구슬 만드는 옥공(玉工)이 엄청난 재물을 받고 부탁하여 전방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그러하니 이 말은 정면으로 가사도의 조치를 비판 한 것이다. 이에 가사도는 크게 화를 내고 진문룡을 지무주(知撫州)로 내쫓더니, 얼마 안 되어 또 대관(臺官) 이가(李可)를 시켜서 그를 탄핵하게 하여 물러나게 하였다.

이 경우는 바른 말하는 사람을 가사도가 탄핵하도록 한 잘못된 탄핵임에 분명하다. 그 후 원군(元軍)이 남송의 도읍인 임안으로 밀려왔고 조야(朝野)에서는 가사도의 한 짓을 아는지라 '가사도를 잡아 죽여서 사죄하라.'고 야단이었다. 태후는 하는 수 없이 그를 귀양 보냈지만, 여전히 그를 죽이라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정호신(鄭虎臣)이 화장실에서 그의 목을 베었다. 올바르지 않게 탄핵을 자행하다가 국사(國事)를 그르친 가사도의 말로였다.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의 탄핵을 발의했고 일부를 의결하였는데, 그 가운데 두 건은 이미 그 탄핵이 잘 못된 것으로 판가름 났다. 나머지는 어떨까? 이 각하된 두 경우로 나머지 탄핵사건을 비추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탄핵은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나머지도 각하될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각하될 탄핵을 왜 했을까? 그것이 혹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거대야당이나 야당대표의 심기를 건드려서 화가 나서 잘못도 없는데 탄핵한 것은 아닐까? 여당 쪽 말은 듣자면 탄핵된 검사들은 야당대표의 비위를 조사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남송시대의 재상 가사도(賈似道)가 자기의 잘 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탄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남송시대에는 가사도의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을 수 없어서 결국 왕조가 멸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만에 하나 지금 계류중인 대통령 탄핵과 나머지 20여건의 탄핵 사건 가운데 진짜 잘 못한 것이 아니거나 잘 못이 있다고 탄핵할 정도가 아닌데도 야당의 비위를 건드려 보복적으로 탄핵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이 아닌가? 탄핵의 정당함을 판가름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야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카더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니 검증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까? 답답하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구상유취(口尙乳臭)

입 구. 오히려 상. 젖 유. 냄새 취.

유래 :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와 천하를 걸고 싸우던 때의 일이다. 한에 복종했던 위나라의 왕표가 항우편에 붙었다. 유방은 왕표를 치기 위해 한신을 보냈다. 한신이 떠날 때 적군의 장수가 누구인가 하고 물으니 백직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방이 "그런 녀석 구상유취야. 백전백승의 한신에게 당할 수 없다."라고 큰 소리쳤고 한신은 순식간에 위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왕표를 사로잡아 유방에게 압송했다. 끌려온 왕표가 머리 조아려 간청하자 유방은 노여움은 거두고 왕표에게 형양의 수비를 맡겼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연산군이 조정대신과 내시들에게 경고성으로 한 말이며 바른말,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참해 버렸다.

원래는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 후진 후주 등에서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가 남긴 말이다.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
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 안신처처뢰安身處處牢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처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거나 사악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구설수에 자주 오른다고 한다.

구우일모(九牛一毛)

아홉마리 소 가운데서 뽑은 터럭 하나. 즉 대단히 하찮은 것을 가리킴

사기를 저술한 사마천이 이릉장군을 변호하다가 반역자를 변호한 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궁형을 받고 살아나와 사기(史記)를 완성하였다. 사마천이 친구 임소경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편지로 써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처음에 궁형을 당하고 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모두 잊으려 했네. 하지만 나 죽는 일쯤은 구우일모(九牛一毛)와 같아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고 이런 치욕을 견디며 살아서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라네. 아버지의 유언으로 남긴 역사서 사기를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일세…"

구절양장(九折羊腸)

아홉 구. 꺾을 절. 양 양. 창자 장.

아홉 번 굽은 양의 창자라는 말로 대단히 구불구불하고 험한 산길을 가리키는 말

구곡간장(九曲肝腸)

꼬이고 꼬인 창자처럼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옛 구. 모습 태. 의지할 의. 그러하다 연.

옛 모습이 그대로인 상태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전혀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군계일학(群鷄一鶴)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말로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르는 말

유래 : 어떤 이가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왕융(王戎)에게 혜강의 아들 혜소가 낙양으로 가던 모습을 전하였다. "어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궁궐로 들어가는 혜소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의젓하고 늠름하여 마치 닭의 무리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혜소는 이후 시중(侍中)이 되어 올바르고 곧게 처신하였다.

2025 경산시 권녀회 신년 교례회 가져!

경산시 권녀회(안동권문 딸들의 모임) 30년의 역사 이어져

경산시 권녀회(회장 권성분 부정공파 37세)는 1월 15일 시내에서 모임을 가지고 을사년 새해의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권녀회는 1995년 8월에 경산시에 거주하는 안동권문의 딸들로 결성된 모임으로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짝수월 수요일에 격월로 모임을 가지며 우의를 다져가고 있다.

권성분 회장은 "권녀회 결성 당시에는 달내들 120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츰 인원이 줄어 지금은 30명이 남아 있는 아쉬움이 있다. 을사년 새해에는 더 돈독하게 우의를 다지며 모두가 건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했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옥 부장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농 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2025年 1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2.30. ~ 1. 22. 총 납부자 40명 총 1,27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중길 30,000	권순봉(성남) 30,000	권영수(안동 와룡면) 30,000	권오준(용인) 30,000	권창호(서울종로) 30,000
권공범(청주) 30,000	권순선(진천) 30,000	권영순(안동 송현동) 30,000	권용완(성남) 30,000	권추현(합천) 30,000
권명안(의정부) 30,000	권순의(진천) 30,000	권영춘(서울관악) 30,000	권용주(안양) 30,000	권충현(대구) 30,000
권병천(김포) 30,000	권순일(고양) 30,000	권영태(구미) 30,000	권용진(서울강남) 30,000	권태명(수원) 30,000
권석구(대구) 30,000	권영국(서울송파) 30,000	권오길(서울노원) 30,000	권용호(서울송파) 30,000	권태웅(서울성동) 100,000
권석주(전주) 30,000	권영국(옥천) 30,000	권오륜(경주) 30,000	권재준(목포)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세광(부천) 30,000	권영록(대구) 30,000	권오목(안동) 30,000	권재희(철원) 30,000	권헌시(강릉) 30,000
권순범(청주) 30,000	권영범(산청) 30,000	권오장(안동) 30,000	권정숙(양산) 30,000	권효택(양주) 30,000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